2026. 11.

프랑스 프랑스 언론연합, 구글 AI를 경쟁당국에 제소

목원대학교/교수
양대승

1. 개요

프랑스 언론연합(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énérale, 이하 APIG)은 2026년 7월 프랑스 내 'AI 개요(AI Overviews)' 및 'AI 모드(AI Mode)' 출시 이후, 구글이 2022년에 약속한 구속력 있는 의무 조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구글을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에 제소했다. 언론사들이 문제 삼는 것은 기술 혁신 자체가 아니라 그 방식과 방법이다.

1) 언론연합의 주장

구글이 2026년 7월 프랑스 시장에 새롭게 도입한 'AI 개요(AI Overviews)' 및 'AI 모드(AI Mode)' 서비스는 종래의 언론사 웹사이트 연결용 링크(스니펫)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언론사 콘텐츠를 종합·요약한 생성형 답변을 검색결과 최상단에 우선 배치하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1] 2019년에 개정된 프랑스 저작권법과 2022년에 체결된 경쟁당국과의 약정에 따르면, 구글은 언론사의 콘텐츠를 새로운 서비스에 쓰기 전에 미리 투명하고 성실한 협상을 거쳐 보상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구글은 협상 없이 일단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고 이미 배는 떠났으니 정해진 규칙을 따르라는 식의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을 통한 기선제압 자세를 취했다.[2] 구글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후 언론사에게 제시한 선택지는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불공정한 조건이었다. 언론사들은 별도의 대가 없이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단순한 갱신을 통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사 사용을 허용하거나, AI 요약을 거부하려면 구글 일반 검색 결과에서도 기사가 아예 노출되지 않는 위험(트래픽 급감)을 감수해야 하는 기술적 거부(Opt-out)뿐이었다.[3]

2) 이미 확립된 법적 틀

프랑스는 2019년 4월 개정된 EU 저작권 지침을 EU 회원국 중 최초로 자국 법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을 2019년 7월 24일에 제정했다.[4] 이 법률은 언론 콘텐츠의 사용 조건으로 사전

1) 스니펫(Snippet)은 링크와 요약글이 함께 결합된 형태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검색 결과에서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와 함께 표시되는 짧은 발췌·요약문을 뜻한다.

2) APIG 공식 성명문(Services d'IA de Google : l'Alliance saisit l'Autorité de la concurrence) 참조. 〈https://www.alliancepresse.fr/actualite/services-dia-de-google-lalliance-saisit-lautorite-de-la-concurrence/〉, (검색일: 2026.9.19.).

3) 위 공식 성명문.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승인과 대가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즉, 구글,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검색 결과나 뉴스 서비스에 언론사의 뉴스 기사, 스니펫(요약글), 헤드라인 등을 표시하고 재사용할 경우, 언론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그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했다. 종래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 한정되던 저작인접권 범위를 뉴스 출판사(언론사)까지 확대하여, 빅테크의 무단 콘텐츠 이용 및 수익 독점에 대한 언론사의 정당한 대가 청구권을 법제화한 것이다.

2. 구글과 프랑스 경쟁당국의 약정

1) 행동 약정의 의의와 체결 경과

2022년 Google은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이 제시한 행동 약정(engagements)을 수용했다. 이 약정은 언론 콘텐츠를 이용할 때 성실하게 협상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5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단순한 자율 협약이 아니라 경쟁당국이 공식적으로 수용을 결정한 약속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위반하면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약정은 2019년 7월에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 뒤 경쟁법 집행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왔다. 2020년 4월 경쟁당국은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가처분 성격의 행정상 잠정조치(mesures conservatoires)를 내리고 언론사·통신사와 성실히 협상하여 콘텐츠 이용 보상을 논의하라고 명령했다.[5] 구글이 이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경쟁당국은 2021년 7월에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6] 이후 2022년 6월 구글은 성실 협상, 투명성, 비차별성을 골자로 하는 약정을 제출했고, 경쟁당국이 이를 수용했다.[7] 이 약정은 2027년 7월까지 유효하다. 약정은 수용으로 끝나지 않았다. 2024년 3월 경쟁당국은 약정 중 일부를 구글이 지키지 않았다며 2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8] AI 서비스(Bard, 현 Gemini)가 언론 콘텐츠를 학습에 쓰고도 언론사·통신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AI 이용을 보호 콘텐츠 표시와 묶어 놓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옵트아웃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위반 사유였다.[9] 특히 이러한 위반은 약정이 구글 자신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중대하다고 평가되었다.

---

4) 2019년 7월 24일 법률 제2019-775호(Loi n° 2019-775 du 24 juillet 2019)을 통해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CPI)의 제L.218-1조부터 제L.218-5조가 편입되었다. 주요 조문인 CPI 제L.218-1조는 언론 출판물의 정의와 수혜자인 언론사와 통신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L.218-2조는 온라인 서비스가 언론 출판물을 전부 또는 일부 복제하거나 공중에 전달하려면 언론사나 통신사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5) 프랑스 경쟁당국 결정, Décision n° 20-MC-01 du 9 avril 2020,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fr/decision/relative-des-demandes-de-mesures-conservatoires-presentees-par-le-syndicat-des-editeurs-de〉, (검색일: 2026.9.21).

6) 프랑스 경쟁당국 결정, Décision n° 21-D-17 du 12 juillet 2021,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fr/decision/relative-au-respect-des-injonctions-prononcees-lencontre-de-google-dans-la-decision-ndeg〉, (검색일: 2026.9.21).

7) 프랑스 경쟁당국 결정, Décision n° 22-D-13 du 21 juin 2022,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fr/decision/relative-des-pratiques-mises-en-oeuvre-par-google-dans-le-secteur-de-la-presse〉, (검색일: 2026.9.21).

8) 프랑스 경쟁당국 결정, Décision n° 24-D-03 du 15 mars 2024,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fr/decision/relative-au-respect-des-engagements-figurant-dans-la-decision-de-lautorite-de-la-0〉, (검색일: 2026.9.21).

9) 옵트아웃을 하려면 검색 색인 전체를 차단해야 하도록 하여 AI 이용을 보호 콘텐츠의 표시와 결합함으로써 언론사의 저작인접권 보상 협상력을 약화시켰다.

2) AI 개요(Overviews) 제소와의 관련성

이번 APIG의 제소 역시 2022년 약정(22-D-13)을 근거로 삼는다. APIG는 구글이 사전 협상이나 전담 보상 절차 없이 AI 개요(AI Overviews)와 AI Mode를 도입한 것이 약정상 성실 협상 의무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나,[10]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주장은 구조상 2024년 사건에서 문제 된 위반 사유와 상당 부분 겹친다. 2024년 사건에서는 구글이 AI 서비스(Bard)에 대한 이용 거부를 인접권 보호 콘텐츠의 표시와 분리하지 못하게 한 점, 즉 AI 이용을 거부하려면 검색 노출 전체를 함께 포기해야 했던 구조를 약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APIG가 이번에 문제 삼는 Search Console 토글 역시 도메인 단위의 이분법적 제어에 그쳐, AI 기능에서 빠지려면 통상 검색 노출까지 함께 잃게 되는 동일한 구조적 결함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제소는 2024년 경쟁당국이 이미 한 차례 제재한 문제 유형이 AI 개요(AI Overviews)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반복되었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두 사건은 대상이 다르다. 2024년 사건이 다룬 것은 2023년 7월 출시된 Bard(현 Gemini)이고, 이번 제소가 다루는 것은 2026년 7월 프랑스에 도입된 AI Overviews와 AI Mode이다. 따라서 AI Overviews 도입이 약정상 새로운 사용(nouvel usage)에 해당하여 별도의 전담 협상 개시 의무를 발생시키는지는 2024년 사건에서 판단된 바 없고, 이번 절차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쟁점이다. 이번 제소가 갖는 절차적 의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PIG는 새로운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의 개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속력을 갖고 감시 수탁자(Accuracy)를 통해 이행이 점검되고 있는 기존 약정 체계의 틀 안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2024년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약정 체계가 실제로 집행 가능하다는 선례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약정은 2027년 7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1회 갱신 가능), 경쟁당국의 판단이 그 전에 내려지는지에 따라 이후 이 문제가 기존 약정의 틀 안에서 다루어질지, 아니면 별도의 남용 사건으로 새로 제기되어야 할지가 갈리게 된다.

3. 결론 및 시사점

결국 이번 사건의 결론은 AI 개요를 약정상 '새로운 사용'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 경쟁당국이 AI 개요를 약정상 새로운 사용으로 인정하면, 이는 향후 Google이 EU 각국에서 유사한 AI 검색 기능을 도입할 때마다 사전 협상을 요구받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거나 판단이 지연되면, 문제는 저작인접권 관련 법 규정 자체의 해석이나 별도의 남용 사건이라는 더 어렵고 느린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어느 경로든 이 사건은 AI 생성 검색 결과와 인접권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 전담 보상 절차는 AI Overviews라는 특정 용도를 위해서만 따로 마련된 협상·보상 절차를 말한다. 즉, 기존 검색 서비스(Search, Discovery, Google Actualités)의 협상과 뒤섞이지 않고, AI 기능의 콘텐츠 사용만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참고자료

- APIG 공식 성명문(Services d'IA de Google : l'Alliance saisit l'Autorité de la concurrence), 〈https://www.alliancepresse.fr/actualite/services-dia-de-google-lalliance-saisit-lautorite-de-la-concurrence/〉, (검색일: 2026.9.19.).
- 프랑스 경쟁당국 결정, Décision n° 20-MC-01 du 9 avril 2020,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fr/decision/relative-des-demandes-de-mesures-conservatoires-presentees-par-le-syndicat-des-editeurs-de〉, (검색일: 2026.9.21.).
- 프랑스 경쟁당국 결정, Décision n° 21-D-17 du 12 juillet 2021,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fr/decision/relative-au-respect-des-injonctions-prononcees-lencontre-de-google-dans-la-decision-ndeg〉, (검색일: 2026.9.21.).
- 프랑스 경쟁당국 결정, Décision n° 22-D-13 du 21 juin 2022,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fr/decision/relative-des-pratiques-mises-en-oeuvre-par-google-dans-le-secteur-de-la-presse〉, (검색일: 2026.9.21.).
- 프랑스 경쟁당국 결정, Décision n° 24-D-03 du 15 mars 2024,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fr/decision/relative-au-respect-des-engagements-figurant-dans-la-decision-de-lautorite-de-la-0〉, (검색일: 2026.9.21).